

##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 제7과 구원에 대하여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위의 성경구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다. 구원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저희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구원과 죄 문제를 아울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원의 뜻

“구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소테리아(σωτηρία)”인데, 기본형 “소스(σῶς)”에서 온 말이다. “소스”는 “안전한, 좋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눅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잃어버려진 사람이 예수님께 발견되어서 좋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다.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구원할 사람은 바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의 뜻을 설명하였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2.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

성경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단언한다.

[롬3:10-12]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인 증거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다.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죽는 것이 죄인인 증거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다. 물론 죽는 것에는 지금 죽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이 포함되는데,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현재의 생명도 죽고 또 영원한 죽음도 당한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나, 성질의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사실을 말한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태어난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도 죄인이다. 이 말은 죽을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이다.

[시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갓난아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러나 그도 죽을 수밖에 없다. 사형수라는 말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사형수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아무 죽을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사형수이다. 왜 그럴까?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 3. 사람은 왜 다 죄인인가?

[롬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5:12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계시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개개인이 각각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세상 맨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이미 한 사람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다.

롬5:12이나 3:23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과거 시제이다. 이미 과거에 다 죄를 지은 것이다.

한 사람의 불순종,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도덕적 죄로 볼 때에는 그렇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죄는 도덕 이전의 상태이다. 그것은 존재와 생명 문제인 것이다. 무슨 말인가?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창2:21-23]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못한 여자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도 친히 여자에게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당신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담보물이 되도록 특별히 계획하셨다. 이 나무를 두고 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살아남는 이들 24).

여자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남자도 먹었다.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책임을 위탁하셨다. 그래서 여자의 생명도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이유이다. 여자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다. 아담에게 준 생기가 여자에게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고전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기 났다는 말은 물로 “게나오(γεννάω)”를 쓴 것은 아니다. 그냥 “에크(ἐκ)”를 번역한 것인데, from이라는 뜻이다.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다.

그리고 결혼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을 명하셨다.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생명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죄이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서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계시한 것이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번성한다. 사람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은 곧 사망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생(生)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한다.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만 아담 안에서 죽은 죽음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 중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태초에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한다.

[행17:26,27]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어떤 종족이든지 다 아담 한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로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자신의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 4.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죽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주고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아담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이 말씀이다. 그는 마지막 아담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의 씨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온전한 생명의 씨로 세상에 탄생하시되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여자에게서 탄생해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실 것이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1:18-25]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

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상에 탄생하셨다. 성경은 구주의 탄생에 대하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예언했는데 이유는 구주의 신원조회를 하여 확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속을 이유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다. 너무나 확실하게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하신 구주 예수를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계시한다. [고전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다 하니.

[롬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첫 사람 아담, 곧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의 사망을 대신하여 죽으실 구주는 첫 아담의 생명의 씨와 상관없는 자신의 생명으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셔서 한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리고 첫 아담을 대신하여 죄가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처리하셨다.

[요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제사들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구주의 희생을 가르치는 예언적 사건들이다.

[고후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요일1:7, 계1:5,6).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즉 첫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산 사람이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다.

[요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행16:30-32]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요6:47,48]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사망을 처리하시고 그의 부활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를 생명에 거하게 한다. 우리는 생명에 거하는 사람들인가? 꼭 생명에 거하여야 할 것이다.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롬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상태인가. 사망을 정복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